News p/3
새누리당 쪼개지나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제3247호 www.metroseoul.co.kr

Life p/15
롯데百 직매입 식품사업 F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2007년 삼성전자 고문을 시작으로 삼성SDI, 삼성카드 사장 등을 거친 최 사장은 이번 제일모직과의 합병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이재용 빼고 설명 가능해?

"빌딩 짓는 것 하고 복제약이 도대체 무슨 시너지?" 삼성물산-모직 합병목적, 시장은 갈수록 '갸우뚱'

이슈 분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이 '명분확보'에 목을 매고 있다. 의결권 방향을 정하지 못한 국민연금 등 핵심 주주들이 삼성이 제시한 합병 목적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주주설득' 여부가 이번 합병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국민연금과 블랙록자산운용(BlackRock) 등 대주주와 잇달아 접촉해 합병 이유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 등은 최근 삼성 측에 '합병 후 주주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블랙록은 각각 10.15%와 2% 안팎의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랙록은 4조7740억 달러에 상당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핵심 주주들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은 합병 발표 후 삼성이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공시에서 합병 목적을 '양사 사업 시너지를 통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이 주주가치 제고·기업가치 확대 등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삼성쪽 편을 들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SK-SK C&C의 합병 때 국민연금공단은 시너지 효과와 지배구조 안정 등을 인정하면서도 '합병비율과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ISS(기관투자자 서비스)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미 합병에 찬성, 합병안 가결이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굳이 SK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SK보다도 삼성측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 시장 분위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에 여전히 냉소적이다. 제일모직의 바이오·옷·레저·식자재·조경과 삼성물산의 건설·상사 부문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이다. 합병비율과 기업 가치 등 삼성물산이 손해 보는 합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도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다. 합병 가능성이 커지면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 주가가 오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 시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주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이 국민연금공단과 외국기관투자자자는 물론 소액 주주들에게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분위기는 다음달 17일 예정된 합병 주주총회까지 살얼음판이다. 특히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7월 1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내려진다. 재계와 법조계 등은 엘리엇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것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법원이 국민연금 공단처럼 입장을 정리하면 주주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건을 본안 재판으로 넘겨 제대로 한번 따져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르면 7월 2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ISS의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ISS 판단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이 ISS와 접촉하고 있지만 삼성 뜻대로 '중립' 정도라도 해줄 지 의문이다. 엘리엇(7.12%)을 포함, 삼성물산의 외국투자자 지분은 33% 정도다. 이들 전부가 반대하면 합병에 필요한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삼성이 이끌어 내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합병안에 자체 판단을 유보하고 찬반 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로 넘기는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는 이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언론탄압 사과는 커녕 "진심으로 망했으면"

日 하쿠타 위원 "비판언론 짓뭉개야" 이어 "아사히·마이니치·도쿄신문 정말 망했으면"

지난 25일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내 친위 모임인 '문화예술간담회' 회합에서 비판언론에 대해 "반드시 짓뭉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던 하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이 지난 28일 다른 강연에서 "오키나와의 신문 2개를 폐간시켜야 한다"며 "그때는 농담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친위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장관(일본 정부 부대변인)은 29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 25일 하쿠타 위원의 강연에 대해 "작가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대단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쿠타 위원은 소설가 출신으로 방송에는 문외한이다. 아베 총리의 낙하산 인사로 현재의 직위를 꿰찬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언론탄압 논란에 대해 미미한 수준의 사과에 그쳤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쿠타 위원은 전날 오사카부 이즈미오쓰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진심' 발언과 함께 오키나와 지방지에 대해 "두 신문사와는 당분간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25일 발언이 보도된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정말 망하길 바라는 건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강연에서 밝히기도 했다.

지난 25일 문화예술간담회 회합에서는 아베 친위 모임 인사들이 비판언론의 기업광고를 끊어서 망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진 바 있다.

일본 민주당은 평화안전법제 특위에서 이 문제를 두고 가토 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가토 부장관은 아베 수상의 측근이자 모임의 주도자다.

가토 부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면서도 하쿠타 위원의 강연 이전에 자신은 퇴장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문제시된 발언은 강연 후 질의 응답에서 나왔다"며 "강연 중 언론과 오키나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百田氏発言をめぐる琉球新報・沖縄タイムス共同抗議声明
検証　百田氏発言

2016年度社員募集要項

社会

百田氏発言をめぐる琉球新報・沖縄タイムス共同抗議声明
2015年6月26日 21:50

百田尚樹氏の「沖縄の２つの新聞はつぶ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発言は、政権の意に沿わない報道は許さないという"言論弾圧"の発想そのものであり、民主主義の根幹である表現の自由、報道の自由を否定する暴論にほかならない。

百田氏の発言は自由だが、政権与党である自民党の国会議員が党本部で開いた会合の席上であり、むしろ出席した議員側が沖縄の地元紙への批判を展開し、百田氏の発言を引き出している。その経緯も含め、看過できるものではない。

さらに「（米軍普天間飛行場は）もともと田んぼの中にあった。基地の周りに行けば商売になるということで人が住みだした」とも述べた。戦前の宜野湾村役場は現在の滑走路近くにあり、琉球王国以来、地域の中心地だった。沖縄の基地問題をめぐる最たる誤解が自民党内で振りまかれたことは重大だ。その訂正も求めたい。

"정부를 비판하는 오키나와 지방지를 짓뭉개야 한다"고 말한 하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을 규탄하는 오키나와타임스와 류큐신보의 공동 항의성명(26일 발표) /류큐신보 홈페이지

다만 같이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언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미온적인 사과에 묻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점심에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과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언론탄압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배려하는 자세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오키나와 주민의 마음에 상반되는 발언이기도 해 유감"이라고 사과하는 데 그쳤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이 문제에 대한 아베 수상의 둔감한 자세·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한편 우리 청와대도 최근 김성우 홍보수석의 국민일보 광고 막기 의혹이나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의 포털 장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노건호, 노무현 비하 대학교수 고소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 교수와 홍익대 교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우원 부산대·류병운 홍익대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두 교수 모두를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노씨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의 명예 및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노씨에 따르면 최 교수는 이달 초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교수 직위를 악용해 학점을 볼모로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의 권리를 넘어선 협박과 다름없다"며 최 교수의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2012년에는 최 교수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부산대에서 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이달 영미법 기말고사 문제 지문에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류 교수의 퇴진에 대한 입장번복은 없다"며 "이달까지 사태를 종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되 혹여 사태가 길어질 경우 류 교수의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거부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노 씨는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입장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그리스 디폴트 임박… 국제사회 긴장

그리스 銀·주식시장 올 스톱

그리스의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발로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전날 저녁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에 따른 조치다.

그리스는 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 유로(약 1조90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뱅크런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 거부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가용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오늘 결정으로 이어졌고, 또한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중단과 예금인출 제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금 안전, 연금과 공무원 급여 지급 보장을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 정부의 제한 조치는 국민투표 다음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영업중단 기간에도 그리스 내 인터넷뱅킹은 허용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은 29일 오전 중단했다가 오후 중 재개할 예정이다.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액은 60유로(7만4000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구제금융 협상안 국민투표 실시 전격 선언 후 시민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아테네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도 아테네 증시는 이날부터 휴장해 이번 주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2013년 키프로스에 이어 유로존에서 두번째 자본통제국이 됐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가시화되면서 국제 주식시장의 주가가 급락했고, 우리나라도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영향권에 들어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그리스가 개혁을 지속하고 유로존 안에서 성장하는 길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리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치프라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스의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루 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그리스의 개혁과 유로존 잔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병형기자

친박 친위쿠데타에 새누리당 쪼개지나

총선 겨냥한 내전 방아쇠 당겨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기 시작한 정치지형도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내년 총선을 통해 비박(비박근혜) 지도부가 장악한 여당을 물갈이하는 형태로 귀결된다.

박 대통령은 말 없이 자신의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물론 총대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멨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기습에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찍어내기 위기에 몰린 유승민 원내대표 사수에 여념이 없다. 당내 수적인 우세가 이들의 강점이지만 '선거의 여왕'인 현직 대통령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9일 거부권 정국은 이미 유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공공연히 찍어내려는 모습에 새누리당을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비박계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의원들의 총의가 아니라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물러나라고 여당 원내대표를 흔드는 것은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유 원내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우리 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원 성향에 따라서 더욱 강경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한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김용태,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비박계 재선의원 20명은 이날 유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긴급회의에 앞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려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의원총회 결과를 무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보다 앞서 최고위 회의는 단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최종결정은 의총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명은 친박과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었다.

재선 의원들이 선봉에 나섰고 이에 동조하는 초선 의원들까지 합세하면 비박계의 수적 우세는 압도적이다. 지난 25일 의총에서도 40여명의 발언자 중 청와대에 동조한 의원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고,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다. 이어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며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는 이어지는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은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기회로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청사진을 내비친 뒤 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해야할 말을 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은 일은 머릿속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와의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은 일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화 통로가 차단된 유 원내대표는 26일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반성문을 공개석상에서 읊어야 했다.

박 대통령의 나머지 실행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비박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적 우위라는 강점을 잃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박계의 친위쿠데타를 봉쇄하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유승민 "잘 경청했고 고민할 것"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 회의가 29일 오후 열렸지만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 의견을 잘 경청했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선 유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문재인·이종걸 이견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투톱 간 엇박자가 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달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민생 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문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정치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본다"며 "당연히 그런(선거법 위반 지적)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박 대통령이 더 심하니까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정회(유신정우회)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시해 자기 뜻대로 할 때의 행동양식이 보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 심지어 친박 의원들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을 종속물처럼 지배할 체제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

김태호 '개죽음' 표현 논란

'제2 연평해전' 13주기 기념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희생을 두고 '개죽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기념해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교전수칙 때문에 피해가 컸던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딸들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고귀한 희생을 막말로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죽음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이 교전수칙을 탓한 데 대해서도 "북한의 기습공격에 희생당한 부분을 이념적 편향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정부를 깎아내리는 수준을 넘어 희생 장병들의 숭고한 죽음을 모독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호(오른쪽)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왼쪽)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고위원회의 중 개죽음과 관련한 발언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귀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29일 "당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정원기자

"검찰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기소"

이규태 회장, '방산비리' 혐의 부인
합수단, 공범 혐의자 2명도 추가 기소

1000억원대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검찰이 자의적 추측으로 혐의를 끼워 맞춰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중개상에 불과한 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 등이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에서 EWTS 공급 계약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수단이 책정한 '최초 제안 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 측에 5100만여 달러를 제시했다는 합수단의 주장에 대해 "금액을 언제 제시했고 납품가를 어떻게 부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기 중개업자에 불과한 이 회장이 방사청을 속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벨산과 방사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60) 전 SK C&C 상무, 조모(49) 전 솔브레인 이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각 진행 중인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본격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판부는 "진행중인 3개의 사건 일부가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정리가 되면 병합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9년 하벨산이 방사청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총 9617만 달러(1101억여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SK C&C가 EWTS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뻥튀기한 뒤 이미 하벨산사가 개발한 기존 제품이나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장비를 신규 개발된 장비인 것처럼 방사청에 납품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등과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SK C&C 국방사업팀 지모 전 부장과 전 일광공영 부회장 강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EWTS 납품 과정에서 부품단가를 부풀려 사업비 510억원을 더 빼돌린 혐의로 윤 전 전무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일제 잔재 국세청 남대문 별관 철거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국세청 남대문별관의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37년 일제가 건립한 이 건물은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 건물터에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교사 동의 없는 CCTV… 훼손해도 무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를 훼손할 경우 무죄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대전의 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장씨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장씨는 노조에 협의를 구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대상이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대법원이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9명이 T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해 일하기는 했지만 학원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보험료까지 납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실비 변상적 금원'에 대해선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돈을 임금총액에서 공제했어야 한다"며 "이들의 급여가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급여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 변상적인 돈이 포함돼 있다"며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등 9명은 짧게는 4년 9개월에서, 길게는 11년 2개월 동안 T어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퇴직한 뒤 법원에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학원은 이들에게 퇴직금 980~280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홍원기자 hong@

서울 지하철 90km 더 생긴다

신림선 연말 첫 착공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2년여의 진통 끝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에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확정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2008년 발표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 노선운영 효율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고속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내부 거점 간 철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10개 노선이며 연장은 89.17km다.

신림선은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실시협약 후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그 밖의 노선은 협상 준비와 사업 제안을 검토 중이다.

동북선은 올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주간사인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협상이 잠정 중단돼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부터 진행된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마친 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에 착수한다.

서부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4km, 정거장 4곳이 추가돼 총사업비가 20% 이상 늘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한다.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위례선과 목동선은 현재 민간에서 사업제안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며, 난곡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은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정으로 건설되는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은 공사 중인 3단계 연장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잇단 소환 불응… 檢 수사 난관

이인제·김한길 '거부'에 후속조치 역풍우려 고심

범야권에 향한 칼날 형평성 논란도 부추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잇따라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출구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검찰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 거부로 계획에 차질을 빚자 후속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2000만원,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 의원과 김 의원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해외 출장과 당론을 이유로 이를 미루다 현재는 사실상 소환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의 후속조치로 체포영장 등이 거론되지만 자칫 역풍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5명이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권을 발동할 경우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시각을 다툴 만큼의 사안이라는 명분도 부족하다.

검찰의 타깃이 범야권을 향하고 있는 대목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특사 의혹을 받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와 김 의원은 모두 범야권 인사이거나 비박(근혜)계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가 확실한 증거 확보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처럼 적극적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영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소환 등 수사를) 강행하려면 그럴듯한 증거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간 보여준 소극적인 자세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방안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 신설 추진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허브코트(중심 법원·hub court) 추진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제재판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제재판부 설치와 국제 전자소송 도입·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영어 등 외국어를 법정용어로 사용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 등도 외국어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함께 제공해 한국 특허법원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재판부는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대법원은 우리 특허법원이 1998년 아시아 최초 지식 재산 전문 법원으로 설립된 것처럼 국제재판부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국제 전자소송과 영상증언 도입·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이 간편하게 우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과 외국인 본인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상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에 대해 '원격 화상 증인심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전문 통·번역사 채용과 영문판례집 발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위원회의 의결과 건의가 이뤄지는 대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한국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지식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재판을 주관하는 장소인 '법정지(法廷地)'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9일 출범했다.

이에 강영호(58·사법연수원 12기) 특허법원장과 김동완(57)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5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봉욱(50·19기) 법무부 법무실장, 정상조(56) 서울대 법대 교수, 이광형(61)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안승호(56) 한국지식재산협회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말 제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특허소송 절차의 글로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우수 사법 인프라와 특허창출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사법모델을 제시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스트레스 대표 유발사례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생활 법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층간 소음 때문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 기자가 살고 있는 집 윗층에서도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접 올라가서 말하자니 '극성주민'으로 찍힐까봐 조심스럽기도 하다.

그만큼 층간 소음 문제는 누구나 해결하고 싶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힘든 분쟁 사항이다. 주민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현재 층간 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도다.

단순하게 정의하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예를 들면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이나 전자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가능하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보다 편리한 해결방법도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대처방안 등 전문상담으로 고충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서도 소음 분쟁 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떠나 최근 일어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폭행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법적 조치 전 공동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과 양보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이홍원기자 hong@

"론스타 청구금액 실체 밝혀야"

민변, 정부에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론스타 공동대책위가 정부를 향해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9일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론스타가 배상액으로 요구한 약 5조1000억원 산출 근거에 대한 것이다.

이날 민변 측은 "그동안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된 거부에 소송까지 내게 됐다"며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번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국민의 혈세가 좌우되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 측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해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려는 전체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한국 정부의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지난달 15~23일 1차 심리가 열렸다. 2차 심리가 이날(현지시간)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이홍원기자

담뱃값 인상 6개월… 정부·편의점만 득봤다

담배 판매량 회복세 서민들 지출만 늘어

정부가 올해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이 되살아나고 있다. 금연 효과보다 세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1월 담뱃값 인상 후 정부의 담배 반출량은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100만갑, 5월 2억7000만갑 등으로 늘며 전년 수준을 되찾아가고 있다.

담배 판매량도 빠르게 회복되며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A편의점에 따르면 담배 판매 감소율은 전년 대비 1월 -33.0%, 2월 -22.4%, 3월 -14.9%, 4월 -10.7%, 5월 -8.6%, 6월-7.4%로 줄며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B편의점도 1월 -36.6%, 2월 -26.4%, 3월-19.3%,4월 -14.7%, 5월 -12.0%, 6월 -10.7%로 회복세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 금연 결심 때문에 연초 담배 판매가 줄다가 3월부터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배 판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편의점만 수혜를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1.5%나 상승했다. 점포증가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액 증가가 매출을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담배 등 편의점 기타 매출은 1월 5.3%, 2월 7.7%, 3월 46.4%, 4월 53.5%, 5월 58.9%로 상승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추가 세수도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증가폭이 2000억원대로 꺾였으나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8800억원 가량 많다.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의 예측이 실패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흡연자들만 입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8%까지 줄인다는 범정부 금연종합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렴주구(苛斂誅求)식 범서민 혈세 착취 정책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랐다

5월 가계대출 금리 3.56%로 ↑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예금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대출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75%로 전월에 비해 0.03%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3.56%로 전달(연 3.36%)보다 0.20%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27%로 전달(2.96%)보다 0.31%p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06%로 전달(2.81%)보다 0.25%p 올랐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지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3%대로 오른 것이다.

여기에는 그간 평균대출금리를 내리는 요인이었던 안심전환대출이 종료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5월엔 은행채 금리가 오른데다 안심전환대출이 끝나 금리를 낮췄던 요인이 사라진 것이 대출금리 상승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금리 3.0% 미만의 가계대출 비중은 4월 66.7%에서 5월엔 37.7%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3%~4% 미만 금리의 적용을 받는 대출 비중은 4월 29.8%에서 5월엔 55.4%로 확대됐다.

이밖에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모든 기관에서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기관에서 모두 내려갔다.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 연 2.21%, 신용협동조합 연 2.33%, 상호금융 연 2.03%, 새마을금고 연 2.28%로 각각 전월에 비해 0.02%p, 0.07%p, 0.06%p, 0.06%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 11.33%로 0.4%p 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연 4.80%, 상호금융 연 4.26%로 각각 0.08%p, 0.09%p 떨어졌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한편 은행이 수익을 얻는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는 1.81%로 전달 보다 0.23%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예대마진(잔액기준 총수신·총대출 금리차)은 2.23%p로 전달과 같았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연%, %p)

		2013.12	2014.12	2015.3	2015.4	2015.5p	월중등락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A)	2.67	2.16	1.92	1.78	1.75	-0.03
	- 순수저축성예금	2.66	2.16	1.91	1.76	1.73	-0.03
	- 시장형금융상품	2.74	2.17	1.97	1.83	1.83	0.00
	대 출 금 리(B)	4.52	3.91	3.61	3.36	3.56	0.20
	- 기 업 대 출	4.67	4.07	3.81	3.67	3.71	0.04
	·대기업 대출	4.43	3.77	3.47	3.39	3.42	0.03
	·중소기업 대출	4.84	4.26	4.02	3.85	3.86	0.01
	- 가 계 대 출	4.10	3.55	3.21	2.96	3.27	0.31
	·주택담보대출	3.74	3.33	2.97	2.81	3.06	0.25
	- 공공 및 기타 대출	3.97	3.50	3.36	4.13	2.93	-1.20
	금 리 차(B-A)	1.85	1.75	1.69	1.58	1.81	0.23
잔액 기준	총 수 신 금 리(C)	2.19	1.92	1.77	1.71	1.65	-0.06
	총 대 출 금 리(D)	4.72	4.21	4.04	3.94	3.88	-0.06
	금 리 차(D-C)	2.53	2.29	2.27	2.23	2.23	0.00

주: p는 잠정치 /한국은행 제공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차 값 오른다

9월부터 '유로6' 적용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젤 승용차에 유로6 규제가 적용된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값 인상이 예상돼 미리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일부터 기존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5보다 한층 엄격해진 유로6 규제를 시행한다.

유로6가 적용되면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이 유로5의 180mg/km에서 80mg/km로, 미세먼지(PM)는 5mg/km에서 4.5mg/km으로 낮아진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를 맞추기 위해 차량에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야 해 차 값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내외 업체들은 이미 상당수 차종을 유로6 기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유로5가 적용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부 차종에 대해선 유로6 적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현대차는 엑센트와 i30, i40, 그랜저, 투싼, 싼타페 디젤 모델을 이미 유로6 기준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

반면 아반떼 디젤(사진)은 9월 출시되는 6세대 신형 아반떼부터, 맥스크루즈는 하반기 중 나올 상품성 개선모델부터 유로6 엔진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 두 차종은 유로 5모델을 살 수 있다.

다만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라크루즈는 유로6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8월 말 단종시킬 예정이어서 이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내달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쏘나타 1.7 디젤을 선보인다.

기아차의 경우 프라이드, 쏘렌토, 카니발, 쏘울, 카렌스가 이미 유로6가 적용돼 시판되고 있다.

남아있는 스포티지와 K3 디젤 모델은 당분간 구입이 가능하지만 스포티지는 8월께, K3는 4분기 중 유로6 모델이 나올 예정이다.

모하비는 8월 말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내년 초 유로6가 적용된 상품성 개선 모델이 출시된다.

내달 출시되는 신형 K5의 경우 유로6가 적용된 디젤 엔진도 선보인다.

한국GM은 하반기 중 출시할 소형SUV 트랙스 디젤 모델에 가장 먼저 유로6를 적용한다.

이어 크루즈,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등의 디젤 모델에도 차례로 유로6를 적용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하반기 중에 QM3·QM5·SM5 D 등 디젤 모델을 유로6 모델로 바꾼다.

르노삼성은 지난 5월부터 스페인에서 수입하는 QM3에 대해 7월 유럽 관세인하를 선 적용해 80만원 할인 판매하고 있다.

쌍용차는 내달 출시되는 티볼리 디젤부터 유로6 모델을 적용한다.

국산차의 경우 9월부터 유로5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의 생산이 중단되지만 수입차는 8월말까지 통관된 유로5 디젤 모델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신차를 제외하고 유로5 모델을 8월 말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e편한세상과 테라스의 첫 만남, 광교가 설레입니다

광교역세권에서 누리는 격이 다른 테라스하우스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자연의 바람길이 드나드는 여유의 공간

- 자연순응형 단지배치로 좌우 생태하천이 흘러 조망과 미관이 우수
- 광교산과 공원으로 둘러쌓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 높은 레벨차로 인해 각 세대별 일조권과 조망권이 우수
- 84㎡~273㎡ 까지 다양한 평면구성과 커뮤니티 공간
- 고급 단독주택 단지와 어우러진 명품 단지 이미지

쾌적함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품격의 공간

- 좌우측 성죽공원, 솔내공원이 둘러쌓여 쾌적한 환경을 자랑
- 광교역(가칭)과 인근 상업시설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 영위
- 안정감 있는 단지배치로 구성, 대형평형 위주로 고급단지의 이미지
- 80% 이상 남향배치로 일조권 우수

특별공급 청약일	6월 30일(화)
1순위 청약일	7월 1일(수)
2순위 청약일	7월 2일(목)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총 576세대

	B3블록	B4블록
타입	84㎡~273㎡ (19개 type)	111㎡~164㎡ (15개 type)
세대수	총 317세대	총 259세대

현장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97번지(B3블록), 1214번지(B4블록)
시행 : 국제자산신탁㈜ **위탁** : [3단지] 광교스트림프로젝트㈜, [4단지] 광교포레프로젝트㈜
시공 : 대림산업㈜ **분양물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본 홍보물 상의 내용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31)214-4200

모델하우스 및 현장 오시는 길

모델하우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5번지

은행권, 여름인사 단행… "영업력 강화 승부수"

메르스 여파·저수익 기조 극복 조직 분위기 개선

국내 시중은행들이 여름인사를 단행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보강인사부터 저금리·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 분위기 쇄신까지 여름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전열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통 여름인사는 정기 인사보다 그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메르스 여파와 저수익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른 인사를 단행, 영업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26일 본부장과 부서장급 인사 이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금신탁본부로 이정은 본부장이 이동하는 등 모두 24명이 자리를 옮겼다.

KB국민은행은 내달 초 부·지점장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5년만에 단행한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1121명이 자리를 비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70여개 지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어 인사 시기를 소폭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규모는 70여석의 지점장 자리에 전보 등을 고려하면 1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행은 지점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인사 공문을 내 7월3일 정식 발령할 계획이다.

임원 중에서는 김종현 정보보호본부 상무와 박정림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이 각각 7월31일, 8월25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는 선임 부행장 전원과 부행장 3명 선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상임이사 자리는 28일 임기가 만료된 심섭 상임이사(경협총괄본부장)와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용퇴를 결정한 설영환 상임이사(건설플랜트금융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입은행이 추천한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내달 초 하반기 인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영업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번에 인사를 내는 '원샷'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화를 위해서 임원들의 임기를 맞췄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13일 임기가 만료된 정원재 기업고객본부 부행장과 유점승 HR본부 부행장 등 11명 임원 임기를 오는 12월로 연장했다.

이는 올해 안으로 민영화를 완수하겠다는 이광구 은행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IBK기업은행은 7월 중순께 여름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신임 지역본부장 9명을 선임하는 등 약 1800명의 승진·이동 인사를 하루만에 마무리하는 '원샷'인사를 실시한 바 있어 여름 인사 규모 폭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윤종경 부산울산경남본부 부행장과 조용찬 IT본부 부행장 등이 7월 1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조직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내달 22일경 하반기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는 조용병 신한은행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부사장급 이하 전 직급을 대상으로 단행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외환노조, 지주회장 포함 '5대5 대화' 제의

법원의 이의신청 수용으로 물꼬가 터졌던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그간 조기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격적인 통합절차를 논의하기도 전에 대화형태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9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하는 '5대5 대화'를 제안했다.

이날 외환노조는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 2·17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데다, 통합관련 실권자"라며 "현행의 '4대4 대화단'에 김 회장과 노조 위원장이 참여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하나금융은 김 회장과 하나·외환 은행장, 양측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대응과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가 취지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반면 외환 노조는 "양측간 합의로 구성된 '4대4 대화단'이 이미 있는데도 5인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잘랐다.

'대화의 틀'을 변경하는 데 대한 ▲양측 간 사전협의도 이뤄진 바 없고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2·17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고 ▲양측간 인적 구성에서 불균등한 협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환 노조측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지난 26일 제안한 '5인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5대5대화'와 관련한 일시와 장소는 하나금융이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환 노조는 "하나지주는 지금까지 '행명사용'을 약속한 바 없다"며 "'외환' 또는 'KEB'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안을 포함, 통합추진위원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포함한다'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장을 제외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해 5대 5로 대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룹의 관계회사는 각 CEO가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전체 관계사의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백아란기자

삼성화재, 강아지 히어로 캐릭터 '봄이' 런칭 삼성화재는 '당신의 봄' 브랜드 캠페인 일환으로 세상의 안전을 지키는 캐릭터 '봄이'를 런칭했다고 29일 밝혔다. '봄이'는 40일 된 강아지로, 온라인에서는 투명망토를 입고 정의감에 불타 안전지킴이를 꿈꾸는 히어로 캐릭터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실제 예비 안내견이 고객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캐릭터 모델에 선정됐다. /삼성화재 제공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은행 8곳으로 확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금 바로 반환 가능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입자들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에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 영업점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은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달 25일까지 총 3425가구가 가입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인하해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강병권 대한주택보증 금융사업본부장은 "시중은행 8개와 수탁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이미 완료했다"며 "이번 취급은행 확대로 보증이용이 활성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우리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등 나머지 수탁은행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대로 상품을 취급한다.

대한주택보증은 향후 제2금융권으로까지 수탁은행을 확대, 세입자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저금리에 재건축 이주까지… 전세난 심화

전세 수익감소로 반전세·월세 전환 빈번해져

#전세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남은 강남 A아파트 세입자 40대 이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집주인이 인상분을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고서라도 전세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수도권의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1억원이 뛰었고 이마저도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을 얻기 힘든 집주인(임대인)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0.1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0.26%)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0.27%)은 전세매물 부족이 심화된 성동구·노원구·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권(0.24%)은 월세와 반전세로의 전환 증가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데다 상승된 매매가격이 다시 전세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전세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금리에 따른 전세 수익 감소가 꼽힌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3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에 불과하다.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그만큼 은행 예·적금 이자도 감소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받아도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것.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집주인들이 반전세와 월세를 선호하면서 물량이 많이 줄어든 데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사진은 강남구 아파트 전경. /뉴시스

여기에 최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도 전세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올해까지 철거·이주 예정인 주택은 총 5만8217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강동구 1만372가구와 ▲서대문구 6649가구 ▲성북구 6619가구 ▲강남구 5335가구 ▲동대문구 4079가구 ▲서초구 3608가구 ▲은평구 3508가구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이주수요는 1만3000가구에 달한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2단지는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 인근 개포시영·3단지도 올해 안에 이주가 끝난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인하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쳐 올 하반기에도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분양물량이 늘면서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대거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자칫 부동산 매매값 하락이 보편화되면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수익형부동산' 콧대 높아졌다

찾는사람 늘어나자 경품 등 혜택 사라져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계약자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 건설사가 굳이 비용이나 수고를 들여 분양마케팅을 펼치지 않더라도 수요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수익형부동산시장에 넘쳐나던 고가 경품마케팅, 임대수익률 보장제 등의 직·간접 할인혜택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최근 모델하우스 앞에서 청약자들이 밤새 줄을 서 대기해 화제를 모은 '성남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만 보더라도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50% 무이자 조건이 고작이었다. 4일 만에 100% 계약을 마감한 '수지 e편한세상 시티'도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만 제공했다.

상가도 마찬가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된 상가 대부분이 계약금 10%와 중도금 무이자 조건만 내세웠을 뿐이다.

사실 수익형부동산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잉공급 논란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판매 부진 현상을 겪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계약자가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기간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상가의 경우 선임대로 임차인을 찾아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모델하우스조차 찾지 않는 수요자들을 유인하고자 명품백, 외제차 등의 선물을 내걸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논현동에 공급하는 '논현2차 푸르지오 시티'는 3년간 임대료 지원 또는 실내 인테리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우건설 제공

하지만 지난해 2%대였던 기준금리가 올 들어 1%대로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익형부동산의 수익률이 하락했다고는 해도 1%대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3~4배가 높기 때문이다. 은행과는 달리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수익형부동산 인기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이 늘수록 대대적인 분양마케팅을 벌일 이유는 없다"며 "수익형부동산은 분양가에 따른 수익률 변동이 큰 만큼 수요자 스스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줄고는 있지만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분양 중인 '논현2차 푸르지오 시티'는 '3년간 임대료 지원' 또는 '실내인테리어 무상 서비스'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롯데캐슬'도 최대 4년간 담보대출 40% 이자지원, 잔금 30%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상업시설은 점포별로 20~25%의 할인분양과 함께, '임대료 보장제'를 제공한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의 '라베니체 마치 에비뉴' 상가는 1년간 시행사가 월세를 부담하는 '무상임대'를 지원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

메르스도 뚫은 분양 열기 '후끈'

견본주택에 구름인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도 달아오른 분양시장의 열기는 꺾지 못하는 모양새다. 매주, 매달 역대 최대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문을 연 견본주택은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9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부천 상동에서 오픈한 '상동 스카이뷰 자이'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3일간 약 2만 명이 다녀갔다. 방문객들이 모델하우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m 이상 줄을 서야 했을 정도다.

'상동 스카이뷰 자이'는 국철 1호선 송내역이 100m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다. 편리한 교통과 중동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호반건설이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에 25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으로 조성하는 '민락2지구 호반베르디움2·3차' 견본주택에는 1만1000여명이 들렀다. 방문객들은 상담석에서 2차와 3차의 특징을 비교하고 청약 조건을 꼼꼼히 따지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림산업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견본주택에는 3일간 무려 6만 명이 몰렸다. 대림산업은 최초의 테라스하우스로, 도심에서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게 주효했다.

양병천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광교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녹지가 풍부해 편의성과 쾌적성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며 "e편한세상 최초로 공급하는 테라스하우스인 만큼 34개 타입으로 평면을 구성하고, 천정고를 일반아파트보다 20㎝ 높이는 등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2-1생활권 첫 분양으로 눈길을 끈 P1구역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와 P2구역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모델하우스도 3만 여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견본주택 앞은 입장을 위해 줄을 선 수요자들과 수백명의 떴다방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박선옥기자

상동 스카이뷰 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엔터株 반등 기지개… 저가 매수 타이밍

| 마켓인사이트 |

하반기 YG 아이돌 데뷔 등 각사 소속연예인 컴백 러시 해외진출 소식도 주가 호재

'엔터주'가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상승 동력)이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엔터주로 에스엠(SM),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 큐브엔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종목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저가 매력이 높아진데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현재 타 업종에 비해 저평가된 '엔터주'의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표 아티스트 컴백 등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 시점을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대표 그룹 '빅뱅'(BIG BANG).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민정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전체 음악시장의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 연예매니지먼트의 실적이 개선이 전망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제작-유통-소비'라는 밸류체인(가치 사슬)에서의 콘텐츠 융합이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그룹 '빅뱅'의 귀환 뿐만 아니라 대형 연예기획사별로 신인 데뷔 계획을 갖고 있어 음악시장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유진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YG엔터테인먼트가 올해 하반기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데뷔 등 실적 개선 모멘텀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데뷔 예정인 아이돌 그룹 '아이콘'은 이미 TV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이그룹 '위너' 콘서트와 걸 그룹 2NE1의 컴백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인수한 자회사 YG Plus(지분 39%)를 통해 화장품과 음식료, 게임, 골프, 의류 등으로 사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보다 각각 18%, 3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 소식도 주가에 호재다.

김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큐브엔터가 올해 소속 연예인 '비스트'와 '포미닛'의 중화권 진출과 아시아투어 개시 등으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비스트의 안정적인 일본 개런티에 더해 20억원의 개런티 수입이 예상되는 비스트와 포미닛의 중화권 진출, 비투비의 일본 실적과 광고 매출 성장 등으로 큐브엔터의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2.1%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내년에는 비스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돔 투어를 할 계획이며 중국 투어 확대도 기대된다"면서 "현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로 16.5배 수준이어서 동종업계 평균 22.8배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신한금투, 수익률 연4% 中 본토 MMF에 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국내MMF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연 4% 수준)의 중국본토 MMF에 투자하는 '신한BNPP중국더단기펀드(H)'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BNPP중국더단기펀드(H)'가 투자하는 중국본토 MMF 수익률은 연 4% 수준으로, 비슷한 신용등급의 국내 MMF(연 1.5% 수준)에 비해 높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MMF운용 규정(채권 신용등급 AAA, 기업어음 신용등급 A-1 이상)에 따라 안정적 펀드에만 투자하므로 보수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그리스 디폴트 위기… 운명의 1주일

국민투표서 합병안 승인땐 불확실성 되레 해소 효과

지난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시작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마침내 현실화 되고 있다.

29일(한국시간) 뱅크런(대규모 은행 예금 인출) 조짐의 격화와 함께 그리스 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아테네 증권시장도 개장을 포기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이 이끄는 좌파 시리자 정부는 자본통제를 시작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긴급 발표했다. "은행 폐쇄와 자본통제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그리스 정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유로(약 1조8600억원)를 갚아야 하지만 금고는 이미 텅 비어있다. 국가부도 사태의 현실화가 목전에 있는 셈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인 이번 IMF 빚은 어떻게 갚더라도 7월20일 또 한번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부채 35억유로(약 4조3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치프라스 수상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러시아에 구원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한 상태다. 결국 유럽연합(EU)와 IMF 등이 추가적인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는 한 그리스는 7월이 가기 전에 디폴트를 선언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7월5일 국민투표가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채권단이 지난 27일 협상에서 던진 최후의 협상안은 앞으로 5개월 동안 120억 유로를 더 빌려주는 대신 △ 공적 연금 지급축소 당장 실시 △ 호텔, 레스토랑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 법인세 인상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치프라스 수상은 "채권단이 그리스를 천천히 죽이려고 한다"며 국민투표에서 협상안에 반대해 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국민투표에서 협상안 수용 불가 결정이 나면 그리스는 유로존이나 유럽연합 체제 내에서 더이상 버틸 길이 없어질 전망이다.

반대로 그리스 국민들이 협상안을 수용하면 치프라스 정권은 붕괴되겠지만, 채권단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총선을 통해 그리스 정권을 유로존 잔류파가 집권하면 그리스 사태는 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김보배기자 bobae@

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 직원 수사 의뢰

투자자 97명 60억원 손해 SK證 "헤지 가이드 따른 것"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SK증권 직원 A씨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떨어뜨렸다. 이후 추가 하락해 며칠간 27만원을 유지했다. 발행 당시 주가 47만2000원 대비 60%를 하회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금감원 측은 "두 종목의 주가가 만기 시점에 이자와 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97명이 6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SK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이라며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지기자

토니모리 공모가 3만2000원 확정

531개 기관 참여 경쟁률 443:1

토니모리 공모가격이 희망공모가 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3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 리더 토니모리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토니모리의 공모 규모는 총 941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531개 기관이 참여해 443: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상장을 주관한 대우증권 관계자는 "토니모리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72.5% 이상이 당초 희망공모가 상단 이상을 제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업계 우위의 품질력과 빠른 기획력을 통한 다양한 해외 진출 성공 레퍼런스를 지닌 토니모리의 성장성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로 총 563억원을 조달하게 된 토니모리는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 대응을 위한 제품 개발·생산 및 중국 직진출 추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7월 설립된 토니모리는 독보적인 품질력 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선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총 20개 국가에 약 1만8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보배기자

삼성테크윈·탈레스, 한화 가족으로 새출발

삼성서 한화로 사명변경
경영권 인수절차 마무리
테크윈, 김철교 대표 유임
탈레스, 장시권 대표 선임

김철교 한화테크윈 대표

장시권 한화탈레스 대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는 29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회사명을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로 변경했다.

한화테크윈은 김철교 현재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경영을 책임진다.

한화탈레스 대표이사에는 한화 방산사업본부장인 장시권 부사장이 선임됐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 2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한화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시켰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삼성 4개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측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재임기간 중 에너지·시큐리티·산업용 장비 등 3대 전략사업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한 경영능력을 기반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유임됐다.

장 대표는 한화 방산부문에서 약 35년간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생산현장 관리에서 영업 일선까지 폭넓은 역량을 보유한 방산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화는 조정된 최종 인수금액인 8232억원 중 삼성 측에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1차분 4719억 원을 지급하고, 삼성 측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모두 수령했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한화테크윈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한화테크윈이 보유한 한화탈레스의 지분 50%도 동시에 확보해 한화탈레스의 공동경영권도 확보했다.

한화테크윈은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3.4%도 보유하고 있어 한화그룹은 4월 말 한화에너지와 한화케미칼이 57.6%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한화종합화학의 지분율을 81%까지 높이게 됐다.

한화그룹은 한화-한화테크윈-한화탈레스의 방위사업과 민수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화와 한화테크윈은 12일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신비전 및 성장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향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는 독립적으로 경영된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 대표는 "한화테크윈이 영위하는 사업은 모두 한화그룹의 주력 분야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대표는 "기존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한화그룹의 기존 방산 부문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시너지를 본격화함으로써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답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 고액결제도 인증서 '안녕~'

비밀번호 기능 도입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가 가능한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능을 도입하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고객은 카카오페이 설정 메뉴를 통해 고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음카카오는 다양한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 카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이(MPay) 결제솔루션은 지난 2014년 7월 금융감독원 보안 '가군' 인증을 받아 공인인증서와 동급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고액결제 비밀번호 기능 도입으로 쇼핑몰, 항공사 등 우수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한 결제 채널 구축과 가맹점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카카오페이의 다양한 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최근 쇼핑 혜택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 채널 구축으로 서비스 이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맹점인 GS SHOP에서 카카오페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3만원, 5000원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월드비전 오렌지액트에서 카카오페이로 후원이 가능해진다. 기부자 전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현대차 '더 브릴리언트 베이스볼 클래식'

"전국 최강 사회인 야구팀 도전 하세요"

내달 26일까지 참가팀 모집
우승팀 500만원 상금 수여

현대자동차는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인 '더 브릴리언트 베이스볼 클래식 2015' 참가자 모집을 29일 시작했다.

참여를 원하는 사회인 야구단은 이날부터 7월 26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더 브릴리언트 베이스볼 클래식'은 현대차가 스포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준비한 사회인 야구대회다.

현대차는 8월 22일 서울 신월구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서울·경기 ▲경남 ▲경북 ▲충청 ▲전라 등 8개 권역 내 15개 구장에서 총 128개 팀, 3000여명의 선수들과 함께 야구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 동안 참가자의 경기력 향상을 돕기 위해 ▲야구 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카마스터를 전담 팀 매니저로 지정하고 ▲야구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회 기간 중 유명 야구선수로부터 원 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인 야구 클리닉을 진행해 야구를 좋아하는 고객에게 야구 노하우를 전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대회 우승팀에 500만원, 준우승 팀은 300만원, 3위와 4위 팀에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는 야구 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필기자 roman@

쌍용차, 中서 티볼리로 SUV시장 공략

쌍용자동차는 중국에서 티볼리(사진) 론칭과 미디어 시승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26일 북경 예술원구에 있는 로즈버드에서 열린 티볼리(현지명 티볼란, Tivolan) 론칭에는 현지 판매 대리점 방대 기무집단 고분유한공사 임직원과 딜러, 기자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7일 열린 미디어 시승행사에는 6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해 북경만상화원호텔부터 청수만까지 약 50㎞에 이르는 고속도로와 비포장도로 구간을 운전하며 티볼리의 주행성능을 체험했다.

티볼리는 1월 출시 후 3월 말 수출 선적을 시작, 이달부터 본격적인 해외시장 판매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터키 앙카라, 이탈리아 티볼리, 벨기에 브뤼셀 등 지역별로 글로벌 론칭 및 시승을 개최하며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티볼리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기존 라인업 강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티볼리 글로벌 론칭 확대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Gear Up!

기아차, 글로벌 캠페인
스페인 활동영상 공개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된 'Re:Design(리:디자인) 프로젝트: 기어 업(Gear Up) 캠페인' 참가자의 활동 모습.

기아자동차는 29일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등에서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기어 업(Gear Up)' 영상을 공개했다.

기어 업은 기아차가 지난해부터 펼치고 있는 프로젝트 '리:디자인(Re:Design)' 활동의 일환이다.

기아차는 5월 13~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한 캠페인의 참가자 활동을 담은 영상 5개를 세계 각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1개국에서 선출된 13명의 캠페인 참가자들은 ▲레이싱 서킷에서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드라이브 '챌린지 코스'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스스로 코스를 선택해 달리는 드라이브 '조이 코스' ▲세계적 명사들을 초청해 인생의 자신감을 주는 '라이프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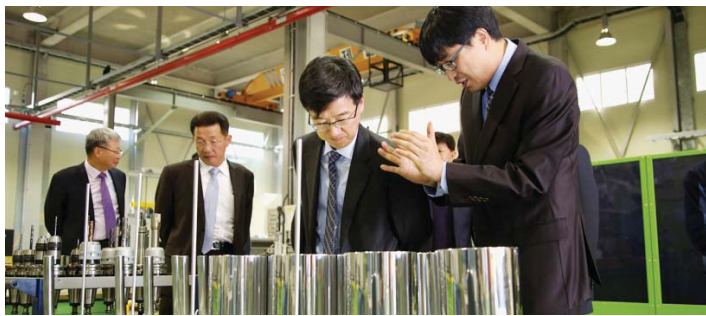
/이정필기자

SK하이닉스, 대-중기 상생 '모범' 자리매김

노사 공동분담 '성과공유제' 임금 인상분 20% 협력사 지원

SK하이닉스 노사가 협력해 임금 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 합의한 '성과공유제'가 상생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최초 산업계에서 노사가 공동 분담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는 자리를 잡았지만 SK하이닉스와 같이 임금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SK그룹의 적극적인 상생협력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2차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는 지난 16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20%를 협력사에 지원하기 위한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김준수·박태석 청주·이천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 동일범 삼구INC 대표 등 협력사 대표단 등이 직접 참석해 상생을 공동분담하기로 다짐했다.

또 삼구 INC 등 5개 협력사 대표와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대중소 동반성장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되는 재원을 협력사 직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기권 장관은 축사를 통해 "SK하이닉스 노사의 결단은 협력업체 노사와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상생고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SK그룹이 추구하는 행복, 상생,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SK하이닉스 노사의 상생협력 임금 공유 프로그램은 노사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소 기업 노사 상생의 선순환 모델로 다른 대기업들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임금 인상분의 20%(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면, 회사가 같은 10%를 추가로 내는 방식)를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노사협력 임금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의 3대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 타결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LG, 충북대 창업 꿈나무 육성

LG 아이디어 컨설턴트 2학기부터 필수과목 강의

LG가 충북대학교와 함께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육성에 나선다.

LG는 자사 아이디어 컨설턴트들이 충북대가 올해 2학기부터 경영학부에 신설하는 '벤처비즈니스전공'의 필수 과목인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을 맡아 강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강 대학생들은 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영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G 아이디어 컨설턴트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15회에 걸친 특강과 실습을 통해 전수받는다.

한편 대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시제품 등을 제출해 평가받고 이중 우수 아이디어는 실제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받는다.

또한 대학생들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마켓을 통해 개방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업화,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

LG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에 설치한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레고 블록을 이용해 모형 제작하고 있다. /LG 제공

아이디어 마켓은 LG 임직원들의 아이디어 중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상품 아이디어를 창업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LG는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제안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북대 경영대학에 아이디어 팩토리 오픈을 지원했다.

아이디어 팩토리에는 시제품 모형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레고 블록, 아이소핑크(핑크색 압축 스티로폼) 실습 도구 등이 비치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해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된다. /임은정기자 eunj71@

돕자클럽, 국내 첫 P2P 매칭 선보여

<개인간 대여>

공유경제 기반… 안정적 수익 투자 설계

돕자클럽이 국내 최초로 공유경제 기반의 개인간대여(P2P) 매칭서비스를 선보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돕자클럽은 최근 P2P 자금매칭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원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특징이다.

이번 P2P 매칭서비스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주장한 이론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사용하지 않는 집이나 자동차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돕자클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제분산 투자 장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이자율과 수익률을 강제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제분산 투자 장치는 예컨대 100만원을 1년간 투자할 경우, 20만원씩 5명에게 강제로 분산 대여하게 하는 포트폴리오 매칭 시스템이다.

또 이자율과 수익률 강제 시스템은 이자율은 8.5~9.5%, 투자수익률도 6~7% 고정시켜 이자생활자·소액투자자·은퇴생활자와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돕자클럽의 관계자는 "돕자클럽은 금융 관련 경험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3년 여의 준비 끝에 올해 5월에 설립됐다"며 "신용이 좋은 차입회원을 스마트한 투자회원에게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 매칭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윤 돕자클럽 대표는 "돕자클럽의 독보적 기술인 포트폴리오매칭을 통해 투자회원들의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을 반영해 1명에서 100명 이상의 차입회원들로 구성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투자회원에게 제시한다"며 "돕자클럽의 이런 시스템은 투자회원과 차입회원이 돕자클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질감에서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ic@

LG, 8월말까지 시스템에어컨 세척 서비스

LG전자는 8월 말까지 시스템에어컨 세척 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시스템에어컨 세척 케어 서비스는 LG전자 전문 엔지니어가 방문해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필터는 물론 열교환기까지 깨끗하게 세척한다. 시스템에어컨 내부의 곰팡이, 이물질 등을 제거해주고 탈취, 코팅, 항균처리까지 해준다.

실내기를 세척하면 열교환기 성능이 올라가면서 냉난방효율이 최대 27% 개선된다.

LG전자는 세척 케어 서비스를 처음 받는 고객 가운데 실내기가 5대 이상이면 1대에 대해 세척 케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용 콜센터(1661-8272)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임은정기자

삼성전자, 내달부터 육아유직 1년→2년

자기계발 휴직제도 실시

삼성전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기계발 휴직제를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 세트부문부터 두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고 29일 사내 공지했다.

육아휴직제는 현행 자녀 1명당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워킹맘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사 3년차 이상 임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제를 신설했다. 최장 1년간 어학연수나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거나 활력을 주고자 하는 휴직제"라며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자율 출퇴근제를 확대하고 하절기 휴일에 반바지 착용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일련의 제도 도입을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근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한진기자

"SKT와 글로벌 ICT시장 개척 선봉에 나설 것"

SK C&C

융합물류 ICT 플랫폼 등 스마트 팩토리 통합 추진

SK C&C가 오는 8월 1일 SK합병법인 출범을 계기로 SK텔레콤과 함께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한다. SK C&C는 ICT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등을 제공해 SK하이닉스 등 관계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를 책임지는 SK텔레콤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의 선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SK C&C는 29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ICT 테크 포럼과 함께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가졌다. SK그룹의 ICT 담당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그룹의 ICT 성장 엔진으로서 'SK C&C의 성장 전략과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ICT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 공략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박정호 SK C&C 사장(중앙)과 이호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위원회 기술전략담당 사장(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ICT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마친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 C&C 제공

이날 행사에는 이호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위원회 기술전략담당(사장), 박정호 SK C&C 사장, 마츠 올손 에릭슨 아·태 지역 총괄, 귄터 클룹쉬 지멘스 코리아 디지털 팩토리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IBM, PTC, 호튼웍스 등 SK C&C의 파트너사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ICT 관계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수 ICT위원회 사장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은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호 SK C&C IT서비스사업장은 "과거 IT는 기존 산업의 사업 지원 역할에 한정돼 있었으나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ICT 융합시대가 열리면서 기업 상품서비스의 고도화를 넘어 ICT 기업이 기존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다"며 ICT산업 변화를 진단했다.

SK C&C는 변화와 혁신이 난무하는 융합 보안·물류 시장의 사업자로 직접 진출할 방침이다. 정보·물리보안과 산업 생산 시설·에너지 관리영역을 한데 묶은 '융합 보안 플랫폼'과 IoT·빅데이터에 기반해 물류량 예측·운송최적화를 실현하는 '융합물류 ICT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SK C&C는 또한 금융·제조 산업과 ICT를 융합해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ICT 서비스 사업과 IoT·빅데이터에 기반해 공장 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팩토리 통합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SK C&C는 기업들이 별도의 개발·인프라 구축 없이도 산업별 ICT 서비스 플랫폼·솔루션을 도입,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ICT서비스를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SK C&C 사장은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정체 돼 있는 데다가 소수의 관련 기업이 한정된 시장을 나눠먹는 구조"라며 "SK C&C는 국내 IT 기업간 통합(M&A)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ICT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SKT-노키아 '5G' 핵심기술 연구 박차

'5G R&D 센터' 개소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노키아(대표 라지브 수리)와 함께 29일 서울 강남구 노키아 코리아 본사에 5G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5G R&D 센터'를 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국내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5G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간을 국내에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5G R&D 센터'를 통해 기가급(Gbps) 데이터 송수신 기술과 클라우드 가상화 기지국 등 5G 핵심기술 연구 및 공동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연내 분당 SK텔레콤 종합기술원에 5G 기술 검증 및 시연을 위한 5G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29일(현지시각) 핀란드 노키아 본사에서 고품질·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 된 '분산 네트워크 기술' 성능 검증에 성공하는 등 5G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분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면 코어 네트워크의 가상화가 가능해져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데이터의 초고속·초저지연 전송이 가능하도록 재구성 할 수 있다.

코어 네트워크는 이동통신망의 콘트롤타워로서 고객인증, 데이터 전송 등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간의 일들을 수행한다. /정문경기자

돌풍일으킨 스마트빔 후속작 'UO스마트빔2'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이 피코 프로젝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스마트빔의 후속 모델 유나이티드 오브젝트(UO) 스마트빔2를 29일 출시했다.

UO 스마트빔2는 기존 스마트빔 큐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3m 거리의 스크린에서 최대 110인치의 크기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80루멘 급 밝기 실현, 4단계 사운드 조절(아이폰 포함) 등 편의 사양이 대폭 향상됐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용을 넘어 업무, 가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포터블 큐브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블랙펄과 화이트펄의 컬러로 세련미를 더했다. 패키지로 제공되는 동글을 결합하면 스마트폰과의 유선 연결 뿐 아니라 미라캐스트·WiDi·iOS 무선 연결까지 지원해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이상철 부회장 "2020년, IoT 세계 1위 목표"

"IoT·비디오 서비스로 미래 ICT 시장 선도"

"수명이 짧고 변화와 혁신을 요하는 ICT 산업에서 홈 사물인터넷(IoT)과 비디오 서비스로 미래 ICT 시장을 선도하겠다. LG유플러스가 2020년 IoT 세계 1위로 발돋움 할 것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비전 선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 LTE비디오포털 출시를 통해 모든 생활이 비디오로 통하는 시대를 만들고, 초연결 시대를 만드는 IoT 세계 1위 사업자로 우뚝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세계 일등기업이 되기 위해선 가치 창출의 중심이 더 이상 공급자가 아닌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미센트릭(Me-Centric)이 돼야 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선보이는 LTE비디오포털과 홈IoT 서비스는 미센트릭을 지향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비디오는 차세대 음성이며 비디오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며 "세계 최초 LTE 전국망 구축을 시작으로 지난 5년 동안 세계 최초, 최고의 LTE 서비스를 선도해 온 LG유플러스는 LTE비디오포털 출시를 계기로 모든 생활이 비디오로 통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과 가수 보아가 29일 서울 용산 본사에서 세계 최초 'LTE 비디오 포털'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TE비디오포털은 다음달 1일에 시작하는 LG유플러스의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다. 기존 유플러스HDTV와 유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던 13만여편 콘텐츠와 함께 포털의 핵심기능인 검색과 추천을 대폭 강화했다.

검색결과를 10가지 이상의 장르별로 상세하게 구분해 제공하고 유튜브 검색 결과도 한번에 볼 수 있다. TV에 소개된 유명 맛집과 국내 여행지를 고객의 현 재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알려주는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포털 사용자환경(UI)으로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의 비디오는 있는 비디오를 보는 게 전부였다"며 "이번에 선보인 LTE 비디오포털은 관련된 모든 비디오를 고객 맞춤형으로 다 보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사물인터넷은 개인, 가정, 산업, 공공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영역이 나뉘어져도 정보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늘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롯데百, 업계 최초 직매입 식품사업 'F학점'

도입 1년 만에 매출 1284억원↓, 영업익 961억원↓
지난해 식품부문 연간 성장률 전년비 7.8%p 줄어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2013년 백화점 최초로 실시한 산지직매입 유통 방식의 식품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9일 롯데쇼핑의 2014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3년 2월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업무 제휴를 맺고 롯데백화점 강남점·영등포점·인천점에 식품 부문 산지직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또 같은해 4월부터는 본점을 중심으로 지역 생산물을 당일 직접 배송하는 로컬푸드제도를 실시했다.

산지직매입은 국내외 산지를 직접 방문,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도 백화점에서 맡는 직매입 형태로 하는 방식이다.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금액 중 일정 수수료를 받는 특정매입 형태와 달리 백화점이 재고와 판매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롯데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산지직매입 유통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효과를 보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지직매입을 실시한 뒤 롯데백화점의 식품 부문 연간 성장률은 2012년 18.7%에서 2014년 10.9%로 7.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2014년 전체 매출에서 식품 부문 비중은 11.2%로 2012년 10.5%에 비해 0.7%포인트 늘었다.

식품 부문은 식품을 구매한 고객이 다른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연관 구매율이 65% 수준으로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필수 상품군이지만 식품 비중을 늘려도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2012년 8조2459억원, 2013년 8조1721억1000만원, 2014년 8조437억45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13년 6986억9400만원에서 2014년 6025억5800만원으로 961억3600만원(13.8%) 감소했다.

2012년 7462억6700만원에 비해서는 19.3%(1437억900만원)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지직매입 방식은 특정 매입 형태와는 다르게 백화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수수료 지급 없이 온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하지만 특정 매입의 경우 판매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입점 업체에 반품할 수 있지만 산지매입은 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내달부터 주류제조업체 시설 기준 강화

하반기 식·의약품 정책 발표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 등

7월부터 주류제조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먹는 햄류도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체는 내달부터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검사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은 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지키면 됐다.

식약처 인정을 받은 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에게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도 9월부터 허용된다.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는 모두 금지됐었다.

10월부터는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에서 호두·쇠고기·닭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아황산류(SO_2로 잔류량 10mg/kg 이상 시)를 추가해 18종으로 늘어난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도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서 햄류로 확대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은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 5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썹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장치다.

인체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내달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다.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생산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부작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공급부족 정보가 7월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의약품 공급 중단 때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정보는 이지드럭(easydrug.mfds.go.kr)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마트, 경량 우산 판매 29일 롯데마트 서울역 점에서 모델들이 일반 무게보다 40%가량 가벼운 'BI 경량 3단 우산'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네이버, 쇼핑정보 통합관리 '쇼핑MY' 오픈

'네이버페이'와 함께 개편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이용자의 쇼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쇼핑MY'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적 쇼핑 정보 관리를 지원하는 쇼핑MY는 지난 25일 오픈했으며 같은 날 출시된 네이버페이와 함께 쇼핑검색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개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쇼핑MY 페이지는 지식쇼핑이나 모바일 O2O(Online-To-Offline) 쇼핑 플랫폼 '샵윈도' 우측 상단에 쇼핑MY 버튼을 누르면 PC와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쇼핑MY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네이버페이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용자들은 쇼핑MY 공간에서 찜한 상품 목록, 단골샵의 새로운 소식을 피드로 받아볼 수 있다. 샵윈도에 우선 적용한 1대1쇼핑톡 메시지,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도 확인 가능하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메르스로 생필품 웃고 문화공연 울고

티몬, 한달간 매출 희비

티몬(대표 신현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발병 후 한 달간(1~25일)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생필품 매출은 늘고,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지역상품과 문화공연 상품이 크게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지난 1일 메르스 첫 사망자 후 지역 카테고리 고객이 급감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문화공연 상품을 판매하는 컬쳐 카테고리는 전년 동기 대비 50% 줄었다.

반면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마트를 꺼려하는 사람들로 인해 배송상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특히 식품과 생활용품 카테고리는 각각 110%, 82% 증가했다.

여행 카테고리는 메르스 여파에도 바캉스철이 다가옴에 따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상승했다. 국내 여행지 관련 상품은 8.5% 감소했지만 해외여행 상품은 55%, 제주여행 상품은 16% 올랐다. /김성현기자 minus@

"해태 아이스크림 먹고 유럽여행 떠나자"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태 아이스크림 먹고 여행 떠나는 해태와 하(夏)하하 COOL하게 떠나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태제과 제공

LG생활건강 '이색 인사하기' 캠페인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이색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LG광화문 빌딩 내 전용 엘리베이터 3대의 안쪽 문에 오바마의 주먹 인사, 손뼉 마주침, 옆사람과 인사 등의 문구와 이미지가 포함된 3종류의 시트지를 부착했다.

'오바마의 주먹인사'편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청소부와 주먹인사를 하는 사진과 함께 "권위를 내려놓자 품격이 올라갔습니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조직 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선후배 구별 없이 먼저 인사를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 '손뼉 마주침'편은 "손뼉은 마주쳐야, 인사는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같은 빌딩 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서로 잘 모르더라도 상호간 친절함이 묻어 나오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옆사람과 인사'편은 거울을 증착한 시트를 활용, "안녕하세요 옆에 보이는 분과 인사하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했다. 엘리베이터 탑승 시 거울을 통해 보이는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라는 취지다. /김수정기자 ksj0215@

시세이도, 황학상 대표 선임 "현지화 박차"

한국 시세이도가 한국인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

한국 시세이도는 7월1일부로 한국시세이도&시세이도 프로페셔널 한국 대표로 로레알 출신인 황학상 신임 대표(사진)를 선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2011년 후지와라 켄타로우씨를 사장으로 선임한지 4년 여 만이다.

시세이도 본사가 현지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한 데에 따라 한국 지사도 이에 발 맞춰 한국 시장에 정통한 황 대표를 새 사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 시세이도는 앞서 '시세이도 비전 2020'을 통해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현지화에 알맞게'라는 기업 이념을 강조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디스플러스 '고래의 꿈' 패키지 리뉴얼

KT&G(대표 민영진)는 국내 시장 레귤러타입 담배 중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인 '디스플러스(THIS PLUS)' 패키지를 리뉴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로 알려진 흰 수염고래의 여행을 모티브로 젊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디자인됐다. 새로운 패키지는 지구본과 돛대를

배경으로 색다른 모험에 나서는 고래의 이미지를 통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감성을 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디스플러스는 타르 5.5㎎에 니코틴 0.55㎎이다. 가격은 4100원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반바지 출근 고민이세요?

제일모직, 쿨비즈 코디 제안
男비즈니스룩 위한 스타일링

/제일모직 제공

제일모직(패션부문 대표 윤주화)은 29일 쿨비즈(Cool Biz.) 착용 문화와 관련해 반바지 패션에 고민하는 직장인을 위한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제일모직에 따르면 비즈니스룩을 위한 반바지는 적당히 몸에 붙는 스타일에 무릎길이 또는 무릎이 살짝 보이는 길이가 적당하다. 무채색보다는 흰색이나 파란색, 남색 계열을 고르는 게 시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의와도 잘 어울린다.

반바지를 흰색 또는 남색 등의 계열로 선택했다면 재킷은 밝은 파랑 계열이나 파스텔톤 색상을 매치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주목받길 원하는 성향이면 잔 체크 스타일로 파란색 또는 남색, 빨간색을 매치해도 좋다.

또 반바지의 밑단을 정장 바지 형태로 턴업(커프스·바지 밑단을 접어서 모양을 내는 것)한 스타일을 선택하면 더 단정되고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바지 착장 시 구두보다는 로퍼(끈이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굽이 낮은 구두), 보트 슈즈(캔버스 소재의 여름철 캐주얼화)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도 소화하기 힘들다면 끈이 달린 단화를 선택하면 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오리온 상장 40주년, 기업가치 7800배↑

2012년 주가 100만원 돌파
계열사 합병 등 제2의 도약

오리온(회장 담철곤)은 주식시장 상장 40년 동안 기업가치가 7800배 성장했다고 29일 밝혔다.

1975년 6월27일 액면가 500원에 166만주를 상장한 오리온은 2004년 주가가 1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12년 100만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40주년을 맞은 27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108만4000원, 시가총액 6조 47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첫 상장보다 기업가치가 무려 7800배 상승한 것이다.

오리온 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성과도 반영된 것"이라며 "최근에는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며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이 1956년 풍국제과를 인수하면서 국내 제과시장에 등장했다. 1974년 국민과자 초코파이를 출시해 첫해 매출 10억원, 이듬해 매출 16억원을 기록했다. 초코파이의 성공으로 내실을 다진 이 회장은 1975년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오리온은 해외 시장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6년 7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이래 1977년 150만 달러, 1978년에는 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1989년 담철곤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1993년 중국 북경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1997년에는 북경 인근 랑팡지구에 최초의 해외 공장을 준공했다. 2006년에는 베트남과 러시아에도 공장을 건설했다. 오리온의 이같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법인은 2012년 국내 매출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1조16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제과업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며 "국내외 시장 개척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

男心 흔든 구두… 지역별 순위는?

지역별로 남성들의 선호하는 구두 스타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강제화(대표 김경덕)가 상반기 전국 주요 매장 4곳의 남성구두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스트레이트팁 구두 ▲부산은 날렵한 구두 ▲대전은 광폭 구두 ▲광주는 윙팁 구두가 각각 판매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금강제화 서울 강남본점에서는 '브로그 없는 옥스퍼드' 스타일의 스트레이트팁 구두가 1461켤레 판매돼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플레인토 구두(1026켤레)· 윙팁 구두(832켤레) 순이었다.

반면 부산본점에서는 구두 앞 부분이 날렵하고 측면에는 스티치가 들어있는 구두(596켤레), 대전본점에서는 발 볼이 넓은 남성들을 위한 광폭 사이즈 구두(434켤레), 광주에서는 정통 클래식 무드가 느껴지는 윙팁 구두(351켤레)가 각각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강남초이스병원, 당일 치료·퇴원에 환자 증가

내과진료 없는 비수술 척추전문병원
디스크, 고주파치료로 10분이면 시술 끝
메르스 감염 걱정 덜어 내원 환자 줄이어

메르스로 인한 대형병원 기피현상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전문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관악구에 위치한 강남초이스병원은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원하는 환자수는 증가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초이스병원은 내과진료가 없는 비수술 척추전문병원으로 간단한 고주파 치료는 10분이면 시술이 끝나 당일 치료,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의 영향이 크지 않다.

병원 자체내에서도 메르스 예방과 차단을 위해 병원 전구역을 소독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하는 환자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또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한테 마스크를 제공하고, 병원 내부 곳곳에 손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뒀다.

경추통증이 너무 심해 메르스로 폐쇄조치 되기 전 서울모대형병원에서 응급으로 목디스크 수술를 받은 개그맨 정준하씨도 얼마전 급성 요통과 우측하지 방사통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방문 했다.

그는 제 5요추 – 제 1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시술 중 통증없이 15분 남짓의 고주파 디스크치료를 받고 바로 완치돼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당일 퇴원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연예인과 일반 환자들이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해 고주파치료 등 비수술치료를 시행받았으며, 메르스로 인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5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고주파 특수치료술 덕분이다. 일반적인 고주파 열 치료(수핵 감압술)와는 차원이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그동안 치료하기 힘들었던 말기 디스크질환 뿐 아니라 재발되거나 디스크가 동반된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획기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못가고 참기만 하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강남초이스병원 조성태원장은 "메르스 때문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까지 집에서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독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척추관절 비수술 병원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는 불안해 하거나 걱정하시지 말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02-875-2200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강남초이스병원 조성태원장(왼쪽)은 "최근 개그맨 정준하(사진 우측)씨가 제 5요추 – 제 1천추간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시술 중 통증없이 15분여 남짓의 고주파 디스크치료를 받고 바로 완치돼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당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강남초이스병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판매

마이크로발전소
하이마트 플래그십스토어 입점

마이크로발전소가 29일부터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하이마트 플래그십매장인 제2롯데월드점에서 판매하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업체로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등 도시 주거형태에 적합한 마이크로급 발전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하이마트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플러그인태양광으로 복수의 태양광 모듈을 직렬로 연결, 마이크로 인버터를 통해 AC 220 볼트로 전환되는 개념이다. 기존 인입전기와 계통연계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전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완성 제품을 받아 손쉽게 조립,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발전시스템이다. 200~250 W 발전 용량 제품을 아파트 베란다, 층간에 설치하면 가전제품의 소비전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스마트홈의 일부로 집안의 발전량과 소비전력을 동시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마이크로와트미터는 저렴한 가격에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선글라스처럼 투명한 글라스타입의 '마이크로발전소-빌트인'은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단계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마이크로발전소 제공

강강술래 "바캉스 시즌 미리 준비하세요"

길벗 추천 여행·운동 책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도서출판 길벗의 여행·운동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30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과 '간고등어코치 홈헬스 무작정따라하기(남자 명품복근)'를 증정한다.

주말여행 코스북은 여행 전문작가 5명이 참여해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이를 연계한 당일 박2일, 2박3일 여행루트를 그림 같은 절경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국내 최초 자동차 여행 코칭북이다. 홈헬스 따라하기는 자신의 체형과 운동 목적에 따라 단계별 10분씩, 총 4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요일별 맞춤 운동법을 소개한다.

한편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강술래는 경기 고양시에 가족단위 중심의 힐링 외식문화공간을 목표로 총 450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개념 외식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중국 톈진시에 첫 매장을 내며 해외진출에도 나섰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후기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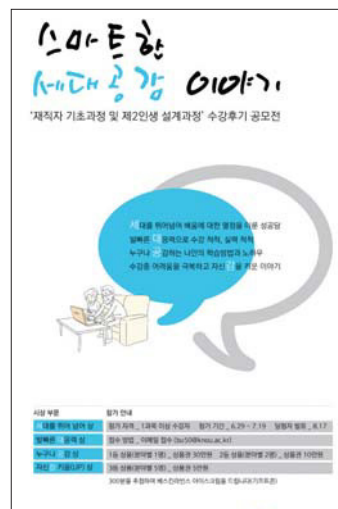
'스마트한 세대공감' 주제
내달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는 오는 7월 19일까지 3주간 '스마트한 세대공감 이야기'를 주제로 수강후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수강생으로서 교육과정을 통해 겪은 나만의 도전 성공기, 역량 강화 사례, 프라임칼리지에 공개하고 싶은 나만의 학습 노하우, 수강 중 겪었던 어려움 극복 후기 등을 남기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방송대 프라임칼리지의 '재직자 기초과정'을 1회 이상 수강하거나 '제2인생설계·준비과정'을 1과목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재직자 기초과정·허브대학(http://hub.knou.ac.kr) 또는 제2인생설계과정(http://prime.knou.ac.kr/)에 방문해 응모(제출) 서식을 내려 받아 A4용지 2매(약 2000자) 이내의 수강후기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bu50@knou.ac.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8월 17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8월 28일 공모 내용에 따라 '세대를 뛰어 넘어 賞', '발 빠른 대응력 賞', '누구나 공감 賞', '자신감 키움(UP) 賞' 등 총 4개 분야다. 각 분야별 1등 1명(30만원), 2등 2명(10만원), 3등 5명(5만원)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준다.

김영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학장은 "매해 운영하는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준비과정'이 2030 고졸재직자와 4050세대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응모된 수강후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 교과목 운영 전략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과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재직자기초과정' 및 '제 2인생 설계·준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star bag

美 LA 프리미어 참석

배우 **이병헌**이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의 28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했다. 영화 '황야의 7인'을 촬영 중인 이병헌은 파라마운트사의 요청과 '황야의 7인' 제작진의 배려로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이병헌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내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추리광과 형사의 만남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영화 '탐정'(가제)이 3개월 동안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26일 크랭크업 했다. '탐정'은 한국의 셜록을 꿈꾸는 추리광 강대만(권상우)과 광역수사대의 전설과도 같은 노형사(성동일)가 펼치는 비공식 합동추리작전을 그린 영화다. 후반작업을 거쳐 올 가을 개봉 예정이다.

데뷔 4년 만에 첫 1위

그룹 **비투비**가 29일 발표한 신곡 '괜찮아요'로 데뷔 4년 만에 첫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괜찮아요'는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엠넷,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뮤직 등 4개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비투비는 이날 컴백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괜찮아요'를 비롯한 정규 1집 음반의 첫 무대를 공개했다.

첫 단독 콘서트 개최

지난 5월 첫 솔로 EP 앨범 '괜찮은 여자'를 발매한 가수 **호란**이 내달 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벨로주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측은 "클래지콰이와 어쿠스틱 프로젝트 그룹 이바디에서 볼 수 있었던 감성적인 보컬에 더해 싱어송라이터 호란의 진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미의 자유분방한 매력에 빠졌죠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 **고준희**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신과는 또 다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그 인물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겨운 나머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인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 느끼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알기에 배우는 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다.

고준희(29)에게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의 나미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자신에게는 없는 자유로움이 있는, 멋있으면서도 부러운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준희는 이번 영화에서 제대로 신나게 놀았다. 그만큼 나미에게 푹 빠져들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임상수 감독의 영화답게 등장인물도 현실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 맨발로 렉카차를 운전하는 나미도 그렇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톰보이 캐릭터다. 하지만 고준희는 나미를 전형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다.

"나미는 외로운 친구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처해 있는 환경도 그렇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처럼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빤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나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친구거든요. 자신의 어두움이나 힘든 것을 회피하지도 않지만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게 좀 멋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나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지누(류승범)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될 때에도 나미는 무엇이 좋은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요구한다.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잠신한 여성 캐릭터다. "사람도 처음 어떤 감정을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나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누를 만나 이전에 몰랐던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맨발로 렉카차 모는 톰보이 캐릭터
전형적이지 않게 연기하려고 노력
즐겁게 촬영… 관객들도 즐겼으면

나미의 매력은 그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이다. 고준희도 나미의 자유로움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즐겁고 신났다. 현실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감정이기에 부러움이 생기기도 했다. 고준희는 "나미는 온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는 지누가 있고 '절친 악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부러웠다"고 말했다.

스크린 속 나미가 자유롭고 솔직한 인물로 다가오는 것은 고준희가 나미를 그 정도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나미에게서 고준희의 실제 모습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준희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나미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나 사이에 닮은 점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비슷한 점은 있을지언정 닮은 점을 찾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인간 고준희도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사는 편이지만 나미만큼은 아니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임상수 감독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다는 점에서 '나의 절친 악당들'은 고준희의 연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작품이다. 다음 작품을 향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에 기대가 클 법도 하다. 하지만 고준희는 "'나의 절친 악당들'을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작품이 서운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품마다 즐겁고 열심히 촬영한 것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지금 고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즐거운 판을 깔아줘 잘 놀았던" 작품을 관객과 함께 보며 신나게 즐기는 것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기)

박보영, 음탕한 처녀귀신 빙의

tvN '오 나의 귀신님'으로 7년만에 안방 복귀

배우 박보영이 안방극장에서 음탕한 처녀귀신으로 빙의한다.

박보영은 다음달 3일 첫 방송되는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연출 유제원·극본 양희승)에서 소심한 주방보조 나봉선 역을 맡아 7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복귀한다.

나봉선은 소심한 성격 탓에 친구도 없고 레스토랑에서의 일도 서투른 구박덩어리다. 하지만 우연히 처녀귀신 신순애(김슬기 분)에게 빙의되면서 생동감 있는 인물로 180도 변신한다. 나봉선과 로맨스를 펼칠 셰프 강선우 역은 조정석이 맡았다.

29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박보영은 "음탕한 처녀귀신에 빙의된 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끄러워 NG도 많이 냈다"며 "하지만 연기를 하면 할수록 적응이 됐다. 소심했던 봉선이와 억센 순애의 양반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캐릭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제원 감독은 "처음부터 나봉선 역은 박보영이 적격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를 캐스팅한 것은 행운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오 나의 귀신님'은 음탕한 처녀귀신에게 빙의된 주방보조와 셰프가 펼치는 빙의로맨스 드라마다. 로맨틱 코미디와 오컬트적 요소가 섞여 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하희철기자 bbuheng@

조정석과 박보영이 29일 열린 tvN 금토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제작발표회에 참석해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리지널 감동 그대로… 佛 뮤지컬 내한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과 '노트르담 드 파리'.

9~11월 블루스퀘어에서 '로미오 앤 줄리엣'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

슬픈 러브스토리를 담은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과 '노트르담 드 파리'가 올가을 나란히 한국을 찾는다.

'십계'와 함께 프랑스 3대 뮤지컬로 불리는 이 작품들은 국내 관객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2005년 프랑스 뮤지컬 최초로 국내를 찾은 '노트르담 드 파리'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송스루 뮤지컬의 진수를 뽐내며 세종문화회관 최단기간 최고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2007년 내한한 '로미오 앤 줄리엣' 역시 프랑스 뮤지컬 신드롬을 낳으며 국내 관객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원작으로, 셰익스피어의 화려한 문체 위에 프랑스 감성을 덧입혀 열정적이고도 순수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2001년 프랑스 초연 후 매년 상연하는 극장마다 프랑스어로 매진을 뜻하는 '콩플레(Complet)'가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작품이다.

올해 무대는 프랑스 뮤지컬이 한국을 찾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로미오 앤 줄리엣' 작곡가 제라르 프레스귀르빅은 "2007년과 2009년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앙코르 공연은 새로운 곡들을 추가하는 등 작품을 업그레이드 했다.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네 남녀의 사랑과 연민을 애절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 초연 당시 아름다운 가사, 웅장한 음악과 무대, 역동적인 안무로 마니아 층을 두껍게 형성했다. 지난 2월 한국을 시작으로 올해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던 오리지널 팀은 유럽으로 돌아가기 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국에서 마지막 앙코르 무대를 갖기로 결정했다.

뮤지컬 '로미오 앤 줄리엣'은 9월 12일~10월 11일, '노트르담 드 파리'는 10월 15일~11월 15일 연이어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된다. '로미오 앤 줄리엣' 티켓 판매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인터파크에서 시작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티켓 구매는 7월 28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두 공연을 함께 구매하는 패키지 티켓 구매는 30일부터 가능하고 티켓가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02) 541-6236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선민이의 아름다운 여행

◆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오후 5시 30분

38주 만에 제왕절개를 통해 만난 딸 아이 선민이는 이틀째 되던 날 갑작스레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 이에 엄마, 아빠는 아기를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야만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옮겨진 선민이는 호흡기에 의존해 어렵사리 고비를 넘겼지만 오른쪽 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고 장과 위의 기능까지 상실한 상태였다.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선민이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만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민이의 긴급 상황은 계속된다. /정리=하희철기자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이수경·서인영이 훈남들과 첫 소개팅을 한다. 이수경은 180cm가 넘는 훤칠한 소개팅남 등장에 볼이 빨개지고, 서인영은 5살 연하 훈남과의 소개팅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여름철, 건강을 위해 먹는 보양식은 무턱대고 먹다간 오히려 내 몸에 병을 만들 수 있다. 2015년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위해 꼭 기억해야할 최고의 건강 비결이 공개된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등교 첫날, 질문 폭격에 멘붕을 겪었던 손호준이 바뀌었다. 영어 발표는 물론이고 일본어 발표까지 척척이다. 심지어 수학시간 깔끔한 문제풀이로 박수까지 받아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헬로 코코몽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62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2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16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55 딱 너 같은 딸 (32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너를 기억해 (4회)	00 화정 (24회)	00 상류사회 (8회)	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제리 맥과이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35 독립영화관 <족구왕>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뮤비뱅크 2 (2회)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33회)	10 집밥 백선생 (6회) (재)	00 맵스 (1회)	00 <와일드 러시아>우랄산맥의 원시림		◆ 프로야구 (18:30) 한화 vs KIA(SPOTV+) 롯데 vs NC(MBC SPORTS+) LG vs 두산(SKY SPORTS) KT vs SK(SBS SPORTS) 삼성 vs 넥센(KBS N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글로벌 특집 (2회)	10 호주편 필러 (2회) 30 오늘 뭐 먹지? (54·75회)	00 수컷들의 치열한 대결 TOP 10	40 용의자X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85회)	30 유미의 방 (1회)	00 <극한직업>상황버섯 채취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33회)	40 집밥 백선생 (7회)	00 올리브쇼 2015 (23회)	00 빛의 물리학 6부		
22시			00 오늘 뭐 먹지? (8·16회)	00 닐 타이슨의 스타 토크 (8회)	00 토스카나 웨딩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0회)	00 신분을 숨겨라 (6회)	00 올리브쇼 2015 (23회)	00 <히틀러의 메가프로젝트>슈퍼 항공기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33회)	20 현장토크쇼 TAXI (385회) (재)	00 유미의 방 (1회) 00 맵스 (1회)	00 <극한직업>동해 가자미 잡이	20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극적인 이글샷' 최나연, 짜릿한 역전승

월마트 챔피언십 미야자토 2타차 꺾어… LPGA 투어 시즌 2승째

최나연이 29일(한국시간) 미국 피너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최나연(28·SK텔레콤)이 극적인 이글샷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었다.

최나연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374야드)에서 열린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중반까지 퍼트 난조로 고전하다가 16번홀(파4)에서 나온 이글 한방으로 분위기를 반전해 2타를 줄였다. 결국 최나연은 합계 15언더파 198타를 적어내 일본 미야자토 미카(13언더파)를 2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받았다.

최나연은 지난 2월 시즌 개막전 코츠 챔피언십 이후 5개월 만에 시즌 2승을 올려 LPGA 통산 9승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 시즌 9승을 합작했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기세에 눌려 우승하지 못한 세계랭킹 3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루이스는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12언더파 201타,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나연은 이날 3라운드 6번홀(파3)에서 2m 거리 파퍼트를 놓쳐 보기를 했다. 8번홀과 9번홀(이상 파4)에서도 3m 버디 퍼트를 잇따라 놓쳤다. 10번홀(파4)에서 3라운드 첫 버디를 잡았다. 13번홀(파4)에서도 1.2m 퍼트를 놓쳐 보기를 적어낸 최나연은 루이스에 1타 뒤진 채 경기 종반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최나연은 16번홀에서 142야드를 남기고 8번 아이언으로 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순식간에 1타차 단독 선두로 나선 최나연은 17번홀(파3)에서도 8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을 홀 옆 한뼘 거리에 붙인 뒤 탭인 버디를 잡아 우승을 굳혔다.

최나연은 "오늘 퍼트가 좋지 않았는데 8번 아이언 덕에 퍼트 없이 우승할 수 있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1,2라운드에서 부진했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는 마지막날 8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공동 6위(11언더파 202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호주 교포 이민지(19)도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6위로 마쳤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박병호, 사상 첫 홈런왕 4연패 '청신호'

6월 몰아치기 24개 공동선두… 강민호는 햄스트링 부상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슬러거 박병호(29·사진)가 사상 첫 홈런왕 4연패 타이틀에 바짝 다가섰다.

박병호는 지난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즌 24호 홈런을 기록했다. 이 홈런으로 강민호(롯데)와 함께 이 부문 공동선두가 됐다. 박병호가 올 시즌 홈런 선두가 된 것은 4월 7일(공동 선두) 이후 82일 만이다.

박병호는 2012년 홈런 31개로 첫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한 뒤 2013년 37개, 2014년에는 무려 52개의 홈런을 쳐 당당히 홈런왕에 올랐다. 올해 박병호는 홈런왕 4연패와 더불어 2년 연속 50홈런 달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의 기록인 29개와 비교해봤을 때 페이스가 늦은 편이지만 박병호 특유의 막판 몰아치기가 있어 가능성은 열려있다.

박병호는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다. 경쟁상대인 삼성의 나바로가 4월까지 무려 11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동안 박병호는 6개에 그쳐 공동 8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부터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달에만 무려 9개의 홈런을 쳐 월간 홈런 1위에 올랐다. 꾸준히 추격을 개시해 6월에도 9개의 홈런을 쳤다. 지난 18일 홈인 목동구장에서는 4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다. 앞으로 6개만 더 쳐내면 1997~2003년 이승엽, 1998~2001년 타이론 우즈에 이은 4년 연속 30홈런 기록도 달성하게 된다.

4연패에 청신호가 켜진 이유는 또 있다. 경쟁상대인 롯데의 강민호가 27일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또 다른 경쟁상대인 나바로가 23개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 NC의 테임즈도 22개로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까지 홈런왕 3연패는 4차례 있었다. 1983~1985년 이만수(삼성)와 1990~1992년 장종훈(빙그레)에 이어 2001~2003년 이승엽(삼성)이 대기록을 달성했고 이후 박병호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거포본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4연패는 없었다. 이만수와 장종훈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고 이승엽은 일본 진출로 신기록을 세울 수 없었다.

/하희철기자

29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마스코트 '누리비'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박을 깨고 있다. /연합뉴스

카자흐·파라과이 선수단 첫 입촌식

광주 하계U대회

금메달리스트 전원 도핑검사

3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참가 선수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29일 92개국 선수단 2122명이 이날 입국한다고 밝혔다. 28일까지 51개국 182명이 입국해 35개국 936명이 선수촌에 이미 둥지를 틀었다. 30일부터 개막 전날인 다음달 2일까지 매일 2000명 안팎의 선수가 입국할 것이라고 조직위는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148개국 1만3182명이 등록을 마쳤다.

카자흐스탄과 파라과이 선수단은 29일 오후 4시 선수단 가운데 처음으로 입촌식을 했다. 선수단은 공연, 환영사, 입촌선언, 국기게양 등 행사를 통해 선전을 다짐했다.

조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을 위해 선수촌에 '메르스 상황실'을 개소했다. 또 출입증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선수촌에 운영 중인 발열감지기 11대의 작동상태도 살펴봤다.

대회 기간 주경기장을 밝힐 성화는 이날 전북 전주·익산, 충남 논산, 전북 군산을 거쳤다. 이어 30일 영광·함평·무안, 7월 1일 무안·목포·영암·나주 등 전남 지역을 거쳐 조직위로 넘겨진다.

한편 조직위는 "유니버시아드 사상 최초로 금메달리스트 전원에게 도핑 검사를 한다"며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도핑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도핑관리 팀장은 "선수촌 개촌일이 사실상 대회 경기 시작으로 보고 사전 검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클린 유니버시아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김인식 위원장, 프리미어12 사령탑

김인식(68·사진) KBO 기술위원장이 2015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KBO는 29일 "2015 프리미어 12 대회가 11월 KBO 리그가 종료되는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 전년도 우승 또는 준우승을 한 현역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하기에는 일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체계적인 대표팀 구성과 대회 최고 성적을 내고자 이번 대회는 전임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술위원장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대표팀 사령탑에 올라 금메달을 땄다.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4강 진출, 2009년 WBC 준우승의 신화를 일궜다.

'프리미어12'는 세계랭킹 상위 12개국이 참가하는 야구 국가대항전이다. 올해 첫 무대는 11월 8일 일본 삿포로돔에서 B조 한국-일본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김민준기자

National Assembly's Law Takes Down Saenuri Party

<새누리당 콩가루 만든 국회법 파동>

President Park has strongly opposed to the Assembly's legislation revised bill which includes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 request.

This problem has risen from Sewol-ho Special Law enforcement ordinance.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Sewol-ho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bereaved and some civic group raised their voice in opposition.

The opposition has suggested a negotiation condition regarding the correction of enforcement ordinance in return, agreeing to the revised bill of Pension for public officials and they have agreed to do so.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전후로 당청 갈등, 여야 갈등, 계파 갈등이 뒤범벅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28일 국회 정문 앞 신호차단기에서 바라본 의사당이 마치 갇혀 있는 듯하다. /연합뉴스

Some say that the assembly's revised bill is aiming for President Park through Sewol-ho enforcement ordinance.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국회법 파동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고 유족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했다. 야권은 지난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의해주는 대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타협 조건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도 이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박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격노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4		1			2
		5		2		4		
	2	4				3	9	
8			1		5			3
	9						8	
6			3		8			9
	3	8				1	6	
		7		1		9		
5			6		3			7

						1	3	
	4				3			2
		1						4
	5						7	
6		7	5					
1	8	9		6				
		5	1	9		4		
4			7		6		5	
	6		2	4				

스도쿠 정답

9	8	6	4	3	1	7	5	2
3	7	5	9	2	6	4	1	8
1	2	4	5	8	7	3	9	6
8	4	2	1	9	5	6	7	3
7	9	3	2	6	4	5	8	1
6	5	1	3	7	8	2	4	9
2	3	8	7	5	9	1	6	4
4	6	7	8	1	2	9	3	5
5	1	9	6	4	3	8	2	7

8	7	2	9	5	4	1	3	6
5	4	6	8	1	3	7	9	2
3	9	1	6	7	2	5	8	4
2	5	4	3	8	9	6	7	1
6	3	7	5	2	1	9	4	8
1	8	9	4	6	7	3	2	5
7	2	5	1	9	8	4	6	3
4	1	8	7	3	6	2	5	9
9	6	3	2	4	5	8	1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혼한 지 3년… 재혼·창업 고민입니다
正道만 걷는 성격… 직장생활이 천직

참사랑님 남자 75년 11월 20일 양력

Q 3년 전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 한 후 오늘까지 혼자 살아 왔습니다. 이혼한 아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 왔지만 요즘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가슴이 아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도금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머슴노릇만 할 것이 아니고 저도 독립을 하고 싶은데 과연 제가 공장을 차려 꾸려 나갈 수 있는 운이 되는지 봐주십시오. 몇몇 친구들이 사업을 한다고 나가서 모두 망하는 것을 여러 번 봐왔기에 망설여집니다.

A 2015乙未年 미토(未土)는 인성(印星) 어머니입니다. 해묘미(亥卯未) 합이 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인성의 기운이 합(合)이 되는 시기에는 모친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이시기에는 가급적 문서상의 거래나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의 차원과 달리 사주학의 이론체계도 선명하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남자 사주에서 재성(財星:내가 극하는 오행)은 여자와 재물을 뜻합니다. 운에서 재성 중에서도 정재(正財)가 운에서 나쁜 형액을 당 할 때 이혼하게 되는 것인데 처 궁에 암합(暗合:몰래 만남)하는 기운에 비정상적인 상태의 흉함이 작용하여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곧 바로 가려고만 하는 직선적인 성향이 있는데 정관(正官)생일주로 의리를 존중하고 단정하며 정도를 지키는 속성이 강하므로 직장생활이 본래 천직이 되는 사주입니다. 사업보다는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굳이 도금공장으로 창업을 하려면 글쎄요 돈을 잃고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서 후회하겠지요. 귀하의 경금(庚金) 생일간(生日干:생일)이 겨울에 태어나 금수상관(金水傷官)격으로 식복을 타고 났습니다. 경오(庚午)는 '백마'의상으로 순수와 고귀함의 상징입니다. 속진(俗塵:풍속 속, 티끌 진)에서는 원대한 이상이 잘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상존합니다. '말이 서쪽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 한가한 중에 엉뚱한 생각을 곧잘 하는 편으로 이러한 성정이 결혼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므로 어떤 결과를 낼 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백전백승이란 말이 현세를 살아가는 내 성정을 잘 알고 상대나 일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30일 (음 5월 15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재물운이 잠시 막힙니다. **60년생** 건강에 항상 유의하세요. **72년생**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8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49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61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3년생**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85년생** 모든 운이 좋은쪽으로 돌아갑니다.

50년생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2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74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86년생**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51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3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5년생** 노력하지만 보람 없이 무너집니다. **87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52년생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64년생** 원하는 꿈이 너무 원대합니다. **76년생** 야속하지만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재물운이 너무 좋습니다.

53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5년생**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77년생** 동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8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54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66년생**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7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90년생** 사랑에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55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67년생** 원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79년생** 업종은 바꾸지 마세요. **91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56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68년생** 금전거래를 주의하세요. **8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2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57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69년생** 일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81년생** 인간관계에 소홀하지 마세요. **93년생**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큰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58년생 남을 많이 도왔으니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70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94년생** 길을 잃거나 해를 당하게 됩니다.

59년생 모든 일이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71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83년생**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때입니다. **95년생** 치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정부 전세대책은 아몰랑?

윤경용의 So what

얼마 전 후배가 전셋집 계약 모험담을 말해줬다. 한 전셋집을 두고 둘이 경쟁해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차지했다는 스토리였다. 본인과의 경쟁에서 진 상대방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그 아파트에서 전세를 못 구해 결국 월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 후배도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 만료가 1년 넘게 남았지만 벌써 불안하다고 했다. 8개월 만에 전셋값이 9000만원이 뛴 데다, 무엇보다 9000만원 오른 전세물건조차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조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후배의 얘기를 듣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 걱정이냐"는 말을 차마 해줄 수는 없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화두가 된 지 벌써 3~4년이 흘렀다. 문제는 같은 전세난이라도 3~4년 전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전세난은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이 계속되자 집을 사기 꺼려한 '자발적'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시작됐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가격이 치솟은 것. 그래도 그때는 전셋값이 비쌌을 뿐,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는 있었다.

현재는 집값도 오르고 주택거래량도 늘었다. 분양시장은 분양하는 단지마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갱신하고 3~4일 만에 계약을 마감할 정도로 달아올라 있다. 비싼 전셋값에 떠밀렸을 지라도 집을 살만한 사람은 다 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금의 전세시장엔 '자발적' 세입자들이 떠나고 진짜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만 남았다. 그런데도 전셋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 구하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다 알다시피 저금리 때문이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리면서 집주인들은 더 이상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들이 빠르게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다 보니 전세물건 자체가 나오질 않는 것이다.

물론 전세라는 제도가 언젠가 사라진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세시장에 전세로 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남아 있는 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가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뉴스테이와 같은 월세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월세시대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뿐이다. 비싼 전세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무용지물인 대책인 셈이다.

지난 주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강서구의 한 중개업소를 찾아 전세난에 대해 "아이고, 참"이라며 탄식을 내뱉었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나몰랑~"식 화법이다. 탄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세난에 지친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진정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경제부장

영화 '카트' 재현될까… 불안한 홈플러스 직원들

기자 수첩

정 은 미
<생활유통부 기자>

지난해 개봉한 영화 '카트'는 상업 영화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그리면서 대중의 공감과 응원을 받았다.

'카트'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이 영화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실제 주인공은 현 홈플러스테스코의 전신인 홈에버의 노동자들이다.

지난 1996년 프랑스 까르푸가 설립한 한국까르푸는 2006년 이랜드에 팔려 홈에버가 됐고, 2008년에는 다시 홈플러스에 피인수돼 지금의 홈플러스테스코가 됐다. 카트는 지난 2007년 이랜드로부터 정리해고 당했던 홈에버 노동자들의 512일 장기파업이 뿌리가 됐다.

이제는 옛날이야기처럼 보이는 영화가 다시 한 번 현실이 될 조짐이 보인다. 홈플러스의 주인인 영국 테스코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내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양해와 협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제과기업인 오리온을 비롯해 칼라일, KKR,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CVC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 등 글로벌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인수 예비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에도 테스코는 이날까지도 매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내달 초에 예비입찰이 이뤄지고 연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파는 사람 없이 팔리게 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홈플러스 매각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매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홈플러스 임직원들에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 아니냐"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테스코의 태도를 비판했다. 나아가 노조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 분할매각이 추진될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홈플러스의 노조의 이 같은 태도에는 유통 대기업과 같은 전략적 투자자라면 고용승계에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보통 3~5년 사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인수 직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영화 '카트'를 다시 찍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서다.

영화 '카트'에는 "저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라는 대사가 나온다. 테스코가 지난 16년간 땀 흘려 일한 한국 홈플러스 직원들의 의해 높은 수익을 챙겨갔다면 최소한 2만6000명에 달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됨으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원전 해체(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는 수십 년이 걸리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다.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해체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전 해체 절차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숙제이기도 하다. 원전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원전 해체의 근거 규정은 바로 원자력안전법이다.

2015년 1월 20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다음달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 당시 월성원전 1호기나 고리원전 1호기처럼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을 때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은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수검결과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IAEA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개정 원자력안전법은 '해체'(decommissioning)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해체'를 원전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건설과 운영 허가신청을 할 때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decommissioning plan)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원전을 해체하는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맞추어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김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천고)

인사

■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본청 운영지원과장 안홍기 ▷본청 심사1담당관 윤상수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준오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파견(마케팅 국장) 엄찬왕

■ 한국환경공단
△부서장(전보) ▷자원순환지원처장 강희태 ▷폐기물관리처장 우해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최용석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방현홍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도통합서비스센터장 선계현 △팀장급(전보) ▷감사실 감사1팀장 박석훈 ▷〃 감사2팀장 박재영 ▷기획조정처 경영평가팀장 양경환 ▷인재경영처 인사팀장 이호철 ▷상수도지원처 상수정책지원팀장 이창직 ▷환경분석처 유해물질분석팀장 최철규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장 임형열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장 황순영 ▷대구경북지역본부 " " 김종천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장 최용 ▷〃 환경시설처 환경진단팀장 한명석

■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복지본부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재정기획관 박문규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도시교통본부장 직무대리 신용목 ▷기후환경본부장 직무대리 유재룡 ▷행정국장 강태웅 ▷관광체육국장 김의승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근수 ▷도시안전본부장 직무대리 김준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고인석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환경에너지기획관 직무대리 김현식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태균 ▷국제협력관 직무대리 정헌재 ▷평생교육정책관 직무대리 김영성 ▷일자리기획단장 직무대리 엄연숙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성은희 ▷보행친화기획관 직무대리 김용남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중곤 ▷주거사업기획관 직무대리 김성보 ▷김경호 광진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윤준병 은평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천석현 강동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천정욱 서초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 여신금융협회
△전보 ▷여신금융연구소장 함정식 ▷카드본부장 박성업 ▷금융본부장 이태운 ▷신기술금융부장 김인성 ▷홍보부장 조윤서 △승진 ▷경영지원부장 오승환 ▷소비자보호부장 이경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장 승진 ▷중앙지부장 장영환 ▷대구경북지부장 최상두 ▷화재환경시스템팀장 정재군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김지영

■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송문석 ▷대기자 겸 뉴미디어국장 박창희 ▷사진부 선임기자 서순용 ▷문화사업부장 박수현 ▷사진부장 곽재훈

LOTTE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롯데주류